

유동성과 AI가 쏘아올린 6천조 원의 거인

KOSPI 4.3% 폭등의 해부학 및 글로벌 FICC 이상 징후 점검

[ACCESS: INSTITUTIONAL_&_PORTFOLIO_MANAGERS]

KOSPI 6,862.14 (+4.30%)

KOSDAQ 865.79 (+0.80%)

US 10Y 4.692% (+5bp)

GOLD \$4,409 (ATH)

KOSPI 6,862.14

+283.10pt | +4.30%

KOSDAQ 865.79

+6.88pt | +0.80%



6,000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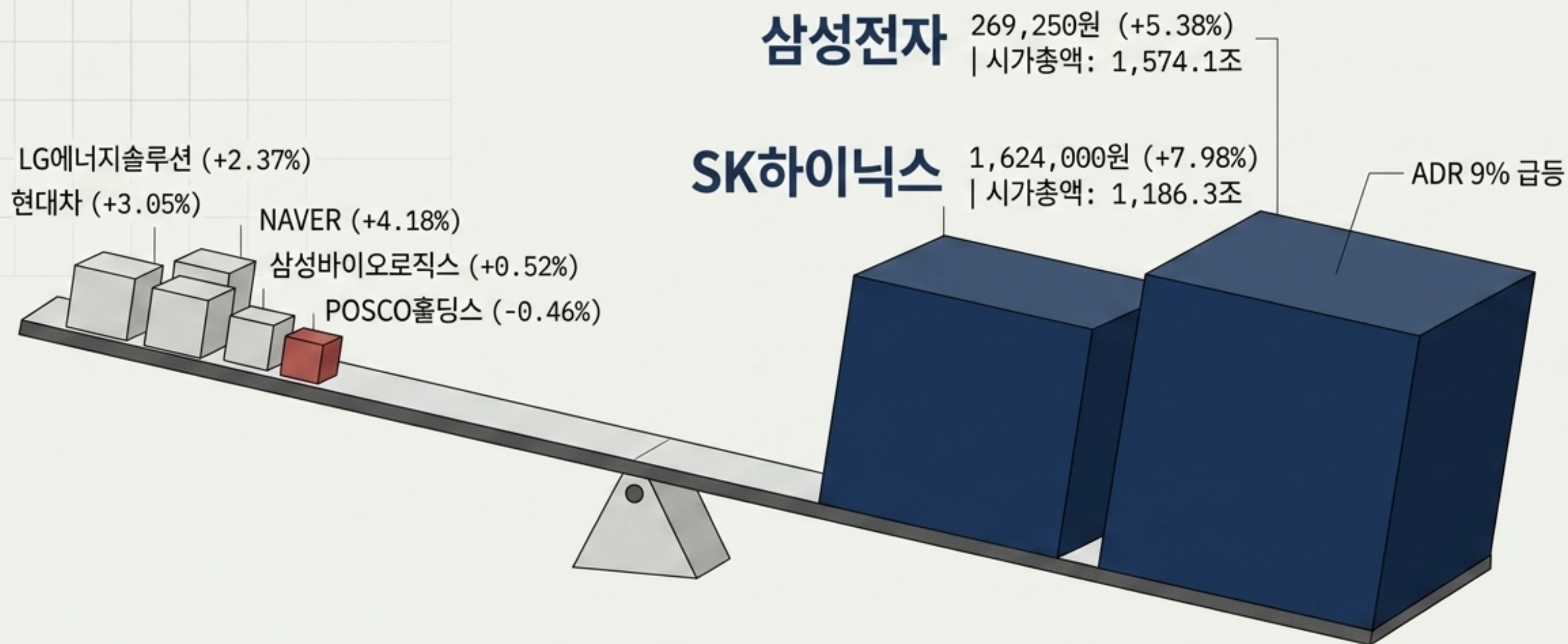
연일 상승장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 6천조 원 회복

[거시적 안도감]

[외국인 자금 유입]

Key Market Drivers

1. 미국 CPI 호조에 따른 뉴욕증시 훈풍
2. 반도체 대형주 주도 장세
3. 과열 우려에 따른 신중론 대두



초거대 반도체 듀오가 지수 전체를 견인. 지수 착시 효과(Index Illusion)를 제거한 섹터별 정밀 분석 필요.

제조업
+2.46%
(1W: +11.84%)

비금속광물
+2.32%

기계
+2.24%

의료정밀
+1.88%
(1W: +9.86%)

전기가스업
-4.92%
(1W: -4.52%)

운수장비
-3.98%

통신업
-2.11%

금융업
-1.94%

[AI 열광]
자본이 성장주로 집중

[가치주 소외]
유틸리티, 통신, 금융 등
전통적 방어주에서의
급격한 자본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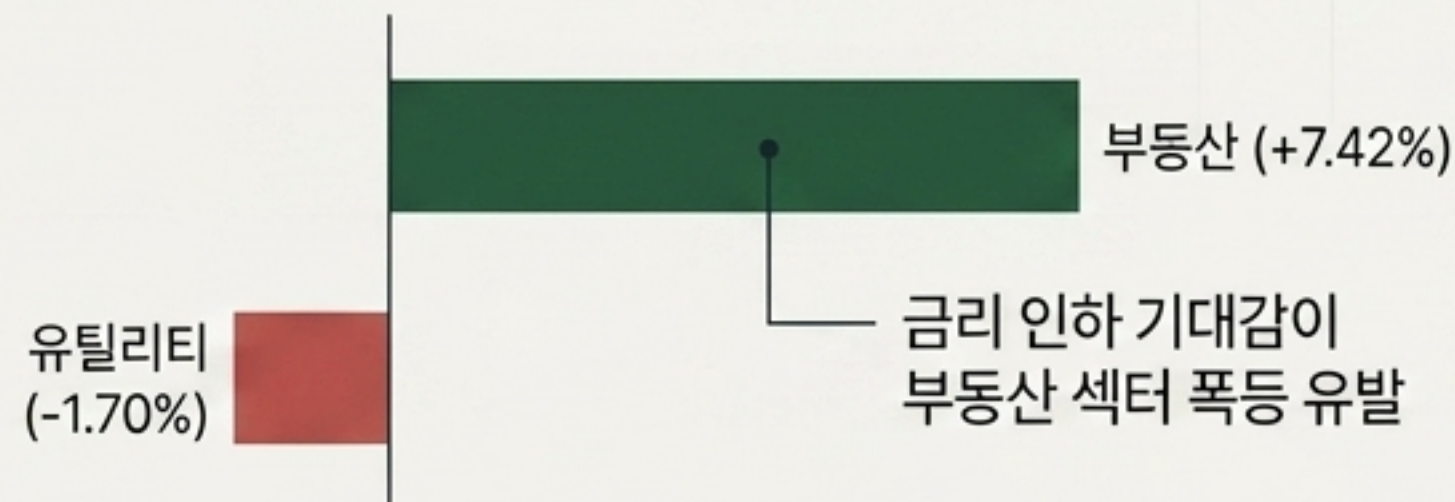
거시적 동인 (Macro Catalyst)

DOW: 53,797.47 (+2.64%) | S&P 500: 7,748.50 (+0.26%) | NASDAQ: (+2.64%) (+0.54%)

핵심 동인: 인플레이션 둔화 속 AI 낙관론 재개

↳ 기술주 파급 효과: 엔비디아 등 주요 AI 주 급등

구조적 변화 (Micro/Sector Shift)



ETF 자금 이동: KB자산운용 'RISE S&P500·나스닥100' 순자산 3조 원 돌파

결론: 패시브 자금의 폭발적 유입이 지수 하방을 지지

KOREA (AI 및 반도체 프록시)

성과: KOSPI +4.30%

핵심 동인: 반도체 사이클 & 미국 AI 동조화

JAPAN (정책 전환)

성과: Nikkei 225 56,734.00 (+0.46%)

핵심 동인: 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 및 은행주
은행주 강세. 엔화 약세 기반 수출주 방어

EUROPE (지정학적 헤지)

성과: DAX 24,998.00 (+0.80%) |
FTSE 100 (+0.79%)

핵심 동인: 방산주 강세 및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

/ CHINA & HK (괴리)

성과: Shanghai +0.45% | Hang Seng
+1.59%

핵심 동인: 아시아 증시 전반 상승 속
지역별 편차 발생

미국 물가 지표 둔화

Commodities & Safe Havens

금 (Gold XAU): \$4,409 (+\$18)

사상 최고치 근접, 안전자산 선호 지속

WTI 원유: \$82.11 (+\$2.62)

호르무즈 교착 및 미국 재고 증가의 혼재

Currency

달러인덱스 (DXY):
0.5 (-0.32)

유로 강세 반영

원/달러 (KRW/USD):
₩1,412.53 (-5.30)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절상

Risk-On Alternatives

비트코인 (BTC): \$67,350 (+\$1,240)

ETF 순유입 지속

위험 선호 신호 (낙관론)

KOSPI +4.3% 폭등

Nvidia & Hynix ADR +9% 급등

비트코인 \$67,350 돌파

미국 부동산 섹터 +7.42%

위험 회피 신호 (경계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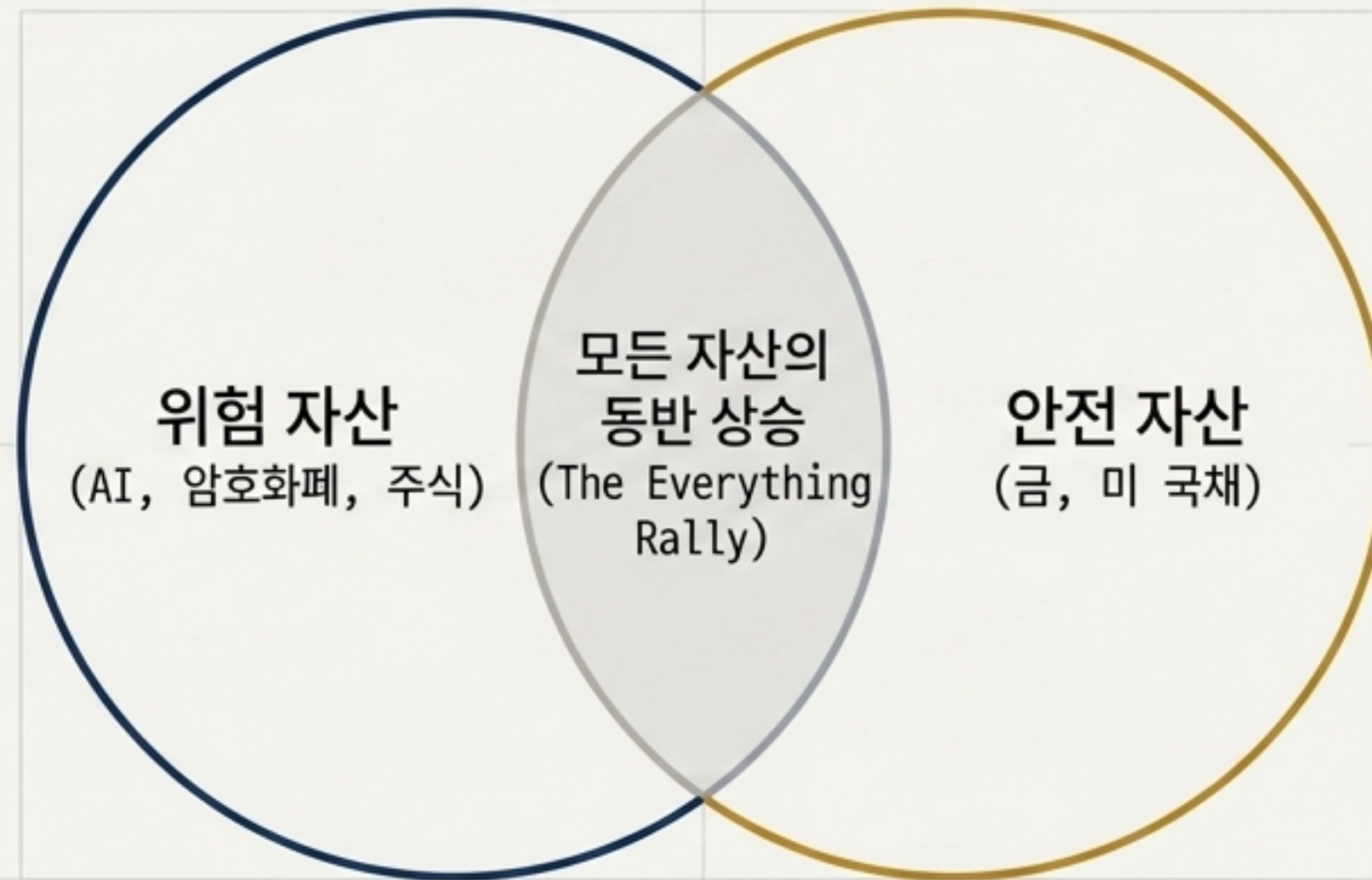
금(Gold) \$4,409 사상 최고치 달성 (극단적 안전자산 쏠림)

미 국채 10Y 4.692% (+5bp) (FOMC 매파 기조 잔존)

마이클 버리 경고: “증시 평온, 대규모 매도신호일 수도...레버리지 피해야”

진단: 표면적 낙관론(지수 급등) 이면에 극단적 안전자산 쏠림(금값 폭등)이 동행하는 기형적 장세.

원인: 유동성 기대감(CPI 둔화)이
전통적인 자산 상관관계를 파괴.



결과: 자본이 '성장'과 '방어' 양극단으로 쏠리며
중간 지대(유틸리티, 전통 금융)가 붕괴.

[높은 취약성]

이례적인 동조화 현상은
시장의 작은 충격에도 연쇄
청산(Cascade Liquidation)
유발할 수 있음.

AI·반도체 연계 전략

현황: KOSPI 6,800선
안착 주도

대응 방안: 단기 매수
타이밍 유효, 단 지수
지수 쓸림 심화로
선별적 접근 필수

환율 및 매크로 대응

현황: 원/달러
1,412원대 진입

대응 방안: 원화 매수
기회 활용. 달러 약세
고착화 여부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

현황: 마이클 버리
경고 및 ETF 과열

대응 방안: 레버리지
축소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 절대 권고

[다음 주요 이벤트] 8/18 (화): 미국 Home Depot (HD) 실적 발표. (미국 소비 지표 및 경기 침체 여부의 핵심 가늠자)